

##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본문 (막 12:13-17)의 예수 말씀 이해

박찬웅\*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본문에 나타난 예수 말씀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 본문이 마가 신학의 중요한 핵심을 암시한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이 일화는 마가복음의 예수 묘사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문은 납세라는 실제적 문제에 대한 예수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로마제국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본문은 예수가 로마 황제를 언급한 유일한 본문이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의 연구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사회-정치적 영역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에서 기록을 남겼다는 데 동의한다. 특히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70년경은 격동의 시대였으며, 따라서 마가복음 해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가 기지는 복음서의 첫 시작 부분에서 자신의 기록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명명한다(막 1:1). 이런 명제의 배후에는 로마제국에 대한 비판의 태도가 깔려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마가 기지는 자신의 복음서를 유대-로마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내전을 종식함으로써

---

\* 목원대학교 조교수

평화를 이룩하는 데 성공한 플라비우스 황조가 선전했던 ‘복음들’(『유대전쟁사』 4:618, 656 참조)에 대한 반(反)복음 내지는 대안적 복음으로 정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마가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로마제국을 겨냥한 직접적 보도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본문 외에 유일하게 로마제국의 현실적 지배가 강하게 암시된 것은 예컨대 거라사의 군대 귀신 본문(막 5:1-20) 정도일 것이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가 로마제국의 군대를 가리키는 명확한 표현인 ‘레기온’(λεγιών) 귀신과 대결하는 장면이 매우 상세하게 보도된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로마제국과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본문은 군대 귀신과 황제에게 납부할 세금이 언급된 이 두 개의 단락이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는 마가복음서 전체가 암시적으로 로마제국과의 대결 상황을 중요한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sup>1)</sup>

본 연구는 가이사 세금 본문에 나타난 예수 말씀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해석 동향 및 역사적 배경과 개연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예수 말씀의 정치적, 신학적 차원을 검토하려고 한다.<sup>2)</sup> 이런 작업을 통해서

- 
- 1) 예컨대 T. B. Liew, “Tyranny, Boundary and Might: Colonial Mimicry in Mark’s Gospel,” *JNT* 73 (1999), 7-31은 마가 기사가 로마 식민정책의 기본 구조를 모방하여 마가복음서의 골격을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즉 마가 기사는 폭정, 경계선, 힘이라는 세 가지 로마제국적 요소를 자신의 복음서에 내면화시켰다는 것이다. 막 12:3-17 해석과 관련하여 그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예수에 대한 충성으로 바꾸고, 식민정책의 내부인-외부인이라는 경계선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 적용하고, 합법적 권위의 중요성을 인지, 재현했다고 본다. 서중석, 『마가복음』, 연세신학백주년 기념 성경주석 3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80-281 참조. 여기서 서중석은 Liew의 해석의 한계를 지적한다. 마가복음에 대한 반(反)로마제국주의적 해석을 표방하는 연구들로, 예컨대 M. Ebner, “Evangelium contra Evangelium: Das Markusevangelium und der Aufstieg der Flavier,” *BN* 116 (2003), 28-42, 특히 33; Gabriella Gelrdini, *Christus Militans: Studien zur politisch-militärischen Semantik im Markusevangelium vor dem Hintergrund des ersten jüdisch-römischen Krieges*, SNT 163 (Leiden/Boston: Brill, 2016), 1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마가복음의 이적 이야기들이 그리스-로마 문화의 배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사례를 제시한, 박경은, “마가복음의 바다평정 이야기(4:35-41)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이해,” *Canon&Culture* 12 (2018), 103-135를 보라
  - 2) 이 연구는 필자가 발표한 다음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찬웅,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공관복음서의 보도,” 『신학과 현장』 30 (2020), 249-272; “가이사에게

이 논문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이 로마제국과의 대립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문은 유일신 신앙의 원리를 바탕으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한다는 점을 조명하려고 한다.

## 2. 연구동향

본문에 대한 해석의 역사는 다양성을 보인다.<sup>3)</sup> 연구 동향을 다룬 학자들이 모두 동일한 범주로 해석의 경향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 학자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데, 아래에서는 일부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려고 한다.

루츠(U. Luz)는 공관복음에 모두 나타난 본문의 주석사를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sup>4)</sup> 그는 로마제국 및 납세 주제에 관해서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본문보다도 로마서 13:1-7이 주석사에서 더 많이 다루어져 왔다고 언급하면서, 우선 고대 교회가 이 본문을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순종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했음을 지적한다.<sup>5)</sup> 그에 따르면, 가톨릭교회가 국가관과 관련하여 본문을 중요하게 간주한 것은 근대 시대부터고, 특히 종교개혁 전통은 이 본문을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왔다.<sup>6)</sup> 또 루츠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신학적

---

바치는 세금에 관한 본문의 역사적 개연성 연구(막 12:13-17),」『피어션 신학논단』 22 (2023), 1-29;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세금을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기독교세계』 (서울: 대한기독교감리회출판국, 2016.5), 44-47. 이 글들에서 필자는 공관복음 비교, 본문의 역사적 개연성 주제 등을 논의했다.

3) J. Mrázek, “Die Beziehung von Kirche und Staat im Neuen Testament,” *Communio viatorum* 56 (2014), 197-210, 특히 199는 본문 해석에 관련된 복잡한 영향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의 발언은 예상하기 힘든 전혀 다른 종류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주석과 심지어 상반된 해석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4) U. Luz,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Mt 18-25)*, III, EK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5), 254-257.

5) 교부 시대의 해석들에 관해서는 Luz,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245-255를 보라.

6) Luz는 해석사를 정리하면서 막 12장을 국가에 대한 충성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에서는 국가 비판적인 해석 흐름이 형성되었고, 고대 교회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더 비중 있게 다루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타운센드(N. Townsend)는 본문에 대한 세 가지의 해석 방향을 정리한다.<sup>7)</sup> 첫째는 이중적 왕국론 해석으로, 이는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균형과 양자의 동등한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는 가이사와 하나님은 각각 고유의 영역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예수의 답변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대표적으로 루터의 두 왕국론(Zwei-Reiche-Lehre)이 그 예가 될 수 있다.<sup>8)</sup> 이런 해석은 두 개의 영역을 구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속의 정치 권력을 더 긍정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기 쉽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대립적 해석으로,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고 가이사의 나라는 설 곳이 없다는 것으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즉 예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이사의 폭력적이고 압제적인 통치에 대한 반대를 제시한다고 보는 입장

---

시점이 종교개혁 시대라고 보았으나, F. Bovon, *Das Evangelium nach Lukas (Lk 19,28-24,53)*, III/4, EK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9), 98-101은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런 해석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7) N. Townsend, “Surveillance and Seeing: A New Way of Reading Mark 12:17, ‘Give Back to Caesar...’,”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7 (2014), 79-90, 특히 80-81을 보라.

8) 루터의 두 왕국론은 두 개의 왕국 또는 제국을 구상했을 뿐만 아니라(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시와 상응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두 개의 아주 다른 뚜렷한 권세가 있음을 강조한다. M. Luther, “On Secular Authority: To What Extent Should it be Obeyed(1523),” *Luther and Calvin on Secular Authority* in, Harro Höpfl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4-15, 특히 6 참조. J. M. Estes, “Luther on the Role of Secular Authority in the Reformation,” *LQ* 17 (2003), 199-225, 특히 222, n. 20은 루터의 두 왕국론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복합적인 의미가 내재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다층적 교리의 복합체라고 평가한다. 물론 루터의 두 왕국론은 주로 롬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마 22:21)라는 말씀은 Luther, “On Secular Authority: How It should be Used,” 18에서 한 번 인용된다.

이다. 이런 입장은 『개역개정』에서 ‘바치라’로 번역된 ‘아포도테’(ἀποδοτε)를 그 동사의 기본적 의미인 ‘되돌려주라’라는 말로 해석한다. 예수는 우상과 같은 황제의 동전은 진실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황제로 인해 부정해진 것들은 황제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답변했으며, 따라서 예수의 진의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는 해석이다.<sup>9)</sup>

셋째는 절충적 해석, 또는 비교 우위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이사를 능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석이다(또는 우선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음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sup>10)</sup> 예수 답변의 이중적 구조는 양쪽을 동급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황제에 대한 것을 상대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강조점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에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황제에 대한 말씀도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상대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은 우선순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그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말이 된다.

타운센드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분석하면서 최근 대부분의 학자는 이 셋째 해석을 지지한다고 평가하고,<sup>11)</sup> 이어서 그는 감시사회 개념을 중심

9) R. Horsley, *Jesus and the Spiral of Viole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87), 306-317. 또한 서용원, “마가의 논쟁설화에 나타난 생존 모티브 - 마가복음 11:27-12:17에 나타난 정치적 요소들의 기능,”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 (2005), 97-128, 특히 113-116은 생존 모티브의 관점에서 본문을 다룬다.

10) W. Pilgrim, *Uneasy Neighbors: Church and State in the New Testament* (Minneapolis, MN: Fortress, 1999), 69.

11) Townsend, “Surveillance and Seeing,” 80. Townsend의 연구동향 분석과는 다른 견해도 있다. 예컨대 S. R. Burke, “‘Render to Caesar the Things of Caesar and to God the Things of God’: Recent Perspectives on a Puzzling Command (1945-Present),” *CBR* 16 (2018), 157-190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의 연구를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하는데, 그에 따르면, 첫째, 배타적 해석(이는 Townsend의 둘째 유형인 대립적 해석과 유사하다), 둘째, 상호 보완적 해석(이는 Townsend의 첫째 유형인 이중적 왕국론 해석과 유사하다), 셋째, 양면적인 모호한 해석, 넷째, 종속적 해석(이는 Townsend의 셋째 유형인 절충적, 비교우위적 해석과 유사하다)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Townsend와

으로 해서 가시성 및 비가시성 개념을 동원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또한 차이히만(C. B. Zeichmann)은 본문에 대한 해석 동향을 넷으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첫째는 적극적으로 세속 권위에 순종하라는 권고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 둘째는 세속 권위에 대한 순종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셋째는 예수 말씀을 오히려 국가 권력에 저항하라는 메시지로 보는 입장으로, 이는 세속 국가의 요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차이히만은 기존의 이런 해석은 모두 마가복음이 기록된 구체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역사적 예수의 정황과 마가 기자의 정황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sup>12)</sup>

해석사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사실은, 본문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본문 해석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마찬가지로 Burke는 종속적, 비교우위적 해석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표된다고 분석하면서, 동시에 아주 최근에는 첫째 유형인 배타적 해석 방식이 급증한다고 분석한다. 그의 연구는 통계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urke의 이 분류에 내용은 박찬웅,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본문의 역사적 개연성 연구,” 1-2에서 다룬 것임을 밝혀둔다.

- 12) C. B. Zeichmann, “The Date of Mark’s Gospel apart from the Temple and Rumors of War: The Taxation Episode (12:13-17) as Evidence,” *CBQ* 79 (2017), 422-437, 특히 426을 보라. Zeichmann의 이런 유형 구분은 Hans Leander, *Discourses of Empire: The Gospel of Mark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SemeiaSt 71 (Atlanta: SBL, 2013), 271-272의 분석을 따른 것이다. 한편 J. A. Fitzmyer, 『앵커바이블 누가복음 II (10장-24장)』, 우성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2144-2146은 이중 왕국론 해석, 반어법적 해석, 반(反)젤롯당적 해석으로 해석동향을 정리한다.

### 3.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개연성 문제

본문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주제는 본문의 역사성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해석은 본문에 묘사된 사건 전체가 대체로 역사적 예수에서 기원한 마가 이전의 전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면서, 본문에 묘사된 내용들을 시대적 배경에 부합한다고 간주해 왔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세 가지 면에서 본문이 후대(구체적으로는 70년 이후)의 정황이 강하게 반영된 편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론이 제기되곤 한다.<sup>13)</sup>

첫째 반론은 본문에서 말하는 세금을 유대 지역의 모든 유대인이 납부한 일종의 인두세로 이해하는 통념에 대한 문제제기로,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 인두세를 가리키는 ‘켄소스’(κένσος)라고 언급된 사실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비판에 따르면, ‘켄소스’는 인구조사를 의미하는 라틴어 ‘켄수스’(census)를 그리스어로 표현한 어휘로서, 이 말은 역사적 예수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신약성서에서는 막 12:14; 마 17:25; 22:17, 19에서 단 네 번 사용되고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sup>14)</sup> 더욱이 모든 유대인에게 인두세가 부과된 것은 70년 유대-로마 전쟁 패망 이후 로마제국의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 신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납세해야 하는 ‘유대인세’(fiscus Iudaicus)가 시행된 이후라는 것이다.<sup>15)</sup> 이와 함께 시리아 총독 구레노가 기원 6년 유대 지역에 인두세를 부과했다는<sup>16)</sup> 근거로 활용되는 요세푸스

13)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역사적 개연성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박찬웅,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본문의 역사적 개연성 연구,” 4-21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4) 마가 및 마태 기자와는 달리 누가 기자는 이 단어를 더 일반적인 어휘인 ‘포로스’(φορός)로 변경한다(눅 20:22).

15)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성인 남성 유대인이 매년 반 세겔의 성전세(출 30:11-14 참조)를 바치는 일을 중지하고 대신 이 유대인세를 부과했다(『유대전쟁사』 7:218). 또한 마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마태공동체와 로마제국의 관계를 분석한 김학철,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마태복음 17:24-27에 나타난 마태공동체의 납세와 로마 지배 체제,” 『신약논단』 13 (2006), 601-629를 참조하라.

16) 구레노의 조사는 시리아 및 유대 지역에 대한 과세와 관련되었다(『유대전쟁사』 2:117-118;

본문의 묘사는 인두세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 일부에게만 적용된 재산세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유대전쟁사』 7:253; 『유대고대사』 18:1-4 참조).<sup>17)</sup>

하지만 유대인에 대한 인두세가 반드시 70년 이후에야 처음 시행되었거나, 또한 기원 6년에 과세를 위해 시행된 구레노의 조사가 확실히 재산세에 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요세푸스는, 기원전 63년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 당시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국고(fiscus)를 위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액수가 일만 달란트로 늘어났으며(『유대고대사』 14:78), 이후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경감했고 안식년에는 세금을 면제한 것으로 보도한다(『유대고대사』 14:201-202).<sup>18)</sup> 여기서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는 명시되지 않지만, 읍바 도시를 제외한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레노의 조사 활동을 보도한 요세푸스가 사용한 중요한 어휘를 포함한 그 보도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둘째는 데나리온 은전을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보는 통념에 대한 문제제기다.<sup>19)</sup> 이런 비판의 요점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7:253-258; 『유대고대사』 18:1-10; 행 5:37).

17) 세금의 종류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F. E. Udoh, *To Caesar What Is Caesar's: Tribute, Taxes, and Imperial Administration in Early Roman Palestine (63 B.C.E. - 70 C.E.)*, BJS 343 (Providence, Rhode Island: Brown University Press, 2005), 207-243; Zeichmann, "The Date of Mark's Gospel apart from the Temple and Rumors of War," 424-425를 보라.

18) Fitzmyer, 『앵커바이블 누가복음 II (10장-24장)』, 2146-2147 참조.

19) 이 은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쓴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동전 앞면에는 라틴어로 "TIBERIUS CAESAR DIVI AUGUSTI FILIUS AUGUSTUS"(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과 같이 고귀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뒷면에는 "PONTIFEX MAXIMUS"(최고의 사제)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는 곧 그를 신적 존재로 칭송하는 표현이다. 뒷면에는 황제의 모친 리비아가 성스러운 홀과 올리브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주조되어 있다. 박찬웅,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공관복음서의 보도," 251. 또한 이 은전에 관해서는 H. St. J. Hart, "The coin of 'Render unto Caesar ...' (A note on some aspects of Mark 12:13-17; Matt. 22:15-22; Luke 20:20-26)," *Jesus and the Politics of his Day*, E. Bammel and C. F. D. Moule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241-248을 보라.

발행한 은전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황제의 모습이 묘사되지 않은) 두로 은전과 같은 다른 종류의 동전이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더 나아가 세금은 동전이 아니라 주로 현물로 납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 화폐를 가리키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에 대한 언급은 비역사적이며, 이 역시 주화로 납세하기 시작한 70년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sup>20)</sup>

하지만 동전의 종류에 관해서도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은전의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몰랐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이 부족하다.

셋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비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비판이다. 이 두 집단이 함께 결탁했다는 보도는 낮은 장면에서 해당하며, 더욱이 당시 총독이 지배하던 장소인 유대 지역에서 헤롯당 사람들이 등장하는 점도 어색하기 때문에, 아마도 바리새파와 헤롯 가문이 밀착 관계를 유지했던 후대의 상황(구체적으로는 헤롯 아그립바1세의 통치기인 41-44년)을 반영한다는 주장이다.<sup>21)</sup>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의 협력 관계는 예수의 갈릴리 활동 초기에도 이미 언급되며(막 3:6), 실제로 헤롯당원들에게 세금은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은 로마제국에 대한 납세의 매개자 역할을 했으며, 권력자들에게 세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원 6년 갈릴리 유다가 ‘바리새인’ 사독과 함께 납세거부 운동을 전개했다는 보도(『유대고대사』 18:4)는 바리새파 역시 세금 문제에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세금의 종류, 화폐의 종류, 등장인물 주제에 관해서는, 세부 사항

20) 동전의 종류에 관한 비판에 관해서는, Udoh, *To Caesar What Is Caesar's*, 233-236; Hart, “The Coin of ‘Render Unto Caesar...’” 248을 보라.

21) W. Carter, “The Things of Caesar: Mark-ing the Plural (Mk 12:13-17),” *HTS* 70 (2014), 1-2; J. P. Meier, *A Marginal Jew: Rethinking the Historical Jesus*, Vol. 3: *Companions and Competitors* (New York: Doubleday, 2001), 560-565; R. Bultmann, *The History of the Synoptic Tradition* (San Francisco: Harper, 1976), 26을 보라.

의 정확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시대적 배경과 정황을 큰 틀에서 볼 때 본문의 묘사는 상당히 역사적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4. 본문의 의미 분석

### 4.1. 예수 삶의 정치적 상징 행위들

예수의 삶에서는 뚜렷한 정치적 상징적 행위가 부각된다. 예수가 유대인 귀족층과 로마제국의 총독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 자체도 그의 활동이 사회·정치적 영역과 밀접했음을 시사한다. 타이센(G. Theissen)은 예수의 메시지가 주로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표방되었으며, 그 메시지는 지배층, 특히 로마제국 및 로마와 결탁한 지방 귀족세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행위로 드러났음을 강조한다.<sup>22)</sup> 우선 예수가 열두 제자 집단을 결성한 것은 유대인 귀족층 심주의의 현실을 대체하려는 상징행위였다. 따라서 그는 어부나 농부같은 평범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나라가 실현될 것을 주장했다(마 19:28-29 참조). 그의 예루살렘 입성 일화도 정치·상징적 행위였다. 그는 군대가 아닌 순례자들을 대동했으며, 로마 총독이 서쪽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것과 달리, 예수는 동쪽으로부터 와서 입성한다(막 11:1-11). 또한 성전 정화 사건도 예언자적 상징행위들이 수반된 뚜렷한 정치적 사건으로, 이를 통해서 기존 성전과 성전 귀족층은 합법성을 (잠정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막 11:15-19).

타이센은 예수 생애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정치·상징적 장면과 함께 납세 질문 장면도 첨예한 정치적 대립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그는 이 본문이 한편

22) 이하의 내용은 G. Theissen, 『기독교의 탄생: 예수운동에서 종교로』, 박찬웅, 민경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87-90을 참조한 것이다.

으로는 황제 통치와 하나님 통치를 대립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통치자와의 무력 충돌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산은 그 재산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또 다른 주장은, 하나님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역사에서 납세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이방인 통치자에게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부분적으로는 콤파-에세네파의 전승에도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sup>24)</sup> 또한 바울이 변증론적으로 납세 주제를 거론했다는 사실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반증한다(롬 13:1-7). 요세푸스는 납세 문제를 유대-로마 전쟁 발발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강조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그립바2세는 납세를 거부하려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며 전쟁 발발을 막으려고 설득한다. “너희가 행한 일들은 이미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다. 너희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았으며, [중략] 너희가 내는 세금도 [총독] 플로루스를 위한 것이 아니다”(『유대전쟁사』 2:403-404). 그러나 이런 설득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납세를 거부했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요세푸스는 보도한다(『유대전쟁사』 5:405-406).<sup>25)</sup> 또한 갈릴리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중요한 역사의 장면에서 납세거부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도 마가복음 12장의 일화가 당시 유대 사회의 민감했던 현안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 여겨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카라스코(A. H. Carrasco)는 마가복음의 주요 정치적 장면들을 검토하면서 마가복음 12장 본문은 뚜렷한 친로마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sup>26)</sup> 예수는 납세 문제와 관련하여 황제나 로마제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

23) Theissen, 『기독교의 탄생』, 89.

24) “네 유업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지 말며, 네 유업을 혼혈족에게도 주지 말도록 하여라”(4Q542). E. J. C. Tigchelaar and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사해문서 4』, 강성열 역 (파주: 나남, 2008), 146.

25) J. Marcus, 『앵커바이블 마가복음 II』, 장성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1386 참조.

를 취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친로마적 해석의 전례로, 본문을 “황제의 통치에 대한 충성 고백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슈타우퍼(Ethelbert Stauffer)의 주장을 소개한다.<sup>27)</sup> 더 나아가 그는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성전 멸망이 로마제국의 책임으로 언급되지 않고 오직 종말의 징조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막 13:7, 『새번역』) 일로 묘사되며, 예수 처형 장면에서 빌라도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카라스코는, 비록 본문의 메시지가 황제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은 아니지만, 단지 정치와 신앙의 영역을 구별하라는 호소에 있다고 이해함으로써<sup>28)</sup> 전통적 해석의 일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가 기본적으로 로마제국 비판적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이 본문에서도 일관성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sup>29)</sup> 카라스코의 해석과 달리, 오히려 본문의 예수는 하나님 중심적 태도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 권력층이 파송한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은 적대적 의도를 갖고 낯선 문제를 통해 예수를 시험하며, 예수는 즉답 대신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테나리온을 문제 삼는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된다. 본문 어디에도 예수가 로마제국을 우호적으로 언급했다

26) A. H. Carrasco, “Jesus, Vespasian und die antioflavianische Lektüre des Markusevangeliums: Thesen und Antithesen zur politischen Interpretation des ältesten Evangeliums,” *BNNF* 185 (2020), 113-131, 특히 126-127.

27) E. Stauffer, *Christ and the Caesar* (London: SCM, 1955), 116. 또한 그는 Lohmeyer가 다소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서, 삶의 영역을 구별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언급한다.

E. Lohmeyer, *Christuskult und Kaiserkult* (Tübingen: J.C.B. Mohr, 1919), 34

28) Carrasco, “Jesus, Vespasian und die antioflavianische Lektüre des Markusevangeliums,” 128. 그는 로마제국과 플라비우스 황조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마가복음서를 해석하는 가설의 약점 가운데 대표적 근거로 이 본문을 제시하며, 또한 예수 처형 장면에서 총독 빌라도가 아닌 유대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다.

29) 성전 멸망에 대한 막 13장의 묵시나, 총독 빌라도에 대한 묘사를 성급하게 로마제국 옹호적 증거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본문들에 대한 섬세한 주석을 필요로 한다.

는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얼핏 이원론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언급에 대한 오랜 해석사의 무게가 본문의 간결한 메시지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4.2. 가이사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본문에서 예수의 말씀은 셋으로 언급된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막 12:15),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막 12:16),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 12:17). 이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해석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겨져 왔다. 이 마지막 말씀을 그리스어로 보면 복수 형태인 ‘가이사의 것들(τὰ Καίσαρος), 하나님의 것들(τὰ τοῦ θεοῦ)’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는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이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발행한 은전 한 개를 가져왔을 것이고, 따라서 아마도 데나리온 은전을 앞에 두고 대화가 오가는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은전에 있는 형상과 글을 지적한 다음에 예수는 가이사의 ‘것들’에 대해 언급한다.

이 장면에 동원된 은전 하나(단수)와 예수 말씀에 언급된 ‘가이사의 것들’(복수)이 불일치한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한 최근의 연구가 있다. 카터(W. Carter)는 본문의 역사성을 신뢰하는 전통적 해석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이사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에 관한 예수의 말씀(막 12:17)은 마가 이전의 전승이 분명하며, 나머지 묘사들은 마가 기자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 창의적으로 편집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가이사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말씀이 마가 이전 전승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로 우선 정판사 바로 다음에 2격이 오는 구문이 공관복음서에서 전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sup>30)</sup> 또한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 예측 가능한 대조적

패턴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된 점은 이 말씀이 이른 시기의 구전 전승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또 그에 따르면, 말씀의 내용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상이 반영된 점, 어휘 용례로 볼 때 ‘아포디도미’(ἀποδίδωμι) 동사가 마가복음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며, 마찬가지로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사용된 ‘에크타우μάζω’(ἐκθαυμάζω) 동사도 마가복음에서 한 차례만 언급된다는 점도 이 말씀이 마가 이전의 전승에 속한 것임을 알려준다는 것이다.<sup>31)</sup>

그런데 ‘가이사의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 말은 포괄적 의미로 황제에게 속한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카터는 복수로 표현된 ‘가이사의 것들’은 납세 의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상업 활동, 군대 복무, 사교 활동 등 로마제국 내에서 살았던 신앙인들이 사회 활동을 유지하며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던 다양한 영역을 가리킨다고 추정한다. 그는 ‘가이사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말씀은 30-60년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신앙인들의 사회적 적응과 체제 긍정의 삶을 승인해주는 기능을 했다고 본다. 그는 ‘가이사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된 배후에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수 말씀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일체감 유지의 기능이 중요했다고 말한다.<sup>32)</sup>

또한 그는 구전 과정에서 전승이 변화되고 다른 전승과 결합되는 유동적 차원이 이 말씀과 관련하여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는 이런 전승의 변화의

30) Carter, “The Things of Caesar,” 2에 따르면, 마가는 중성 복수 정관사 ‘타’(τά)를 51번 사용하는데, 이 정관사 다음에 2격이 이어지는 경우는 4번이다. 이 가운데 막 12:17에 언급된 2번을 제외하면 막 8:33에서도 2번 연달아 나타난다(하나님의 일들, 사람의 일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가이사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에만 나타나고(눅 20:25), 마태의 경우에는 이 말씀을 제외하고 마 8:33; 16:23(2번); 24:17에서 4번 더 언급된다. C. H. Giblin, “‘The Things of God’ in the Question Concerning Tribute to Caesar (Lk 20:25; Mk 12:17; Matt 22:21),” *CBQ* 33 (1971), 510-527, 특히 520-525 참조.

31) Carter, “The Things of Caesar,” 2는 더 나아가 막 12:13-16에서 사용된 많은 어휘가 마가 기자의 표현임을 논증하려고 한다.

32) Carter, “The Things of Caesar,” 4.

예로, 가이사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그리고’를 가리키는 ‘카이’(καί) 접속사로 연결된 사실을 제시한다. 즉 그리스어 본문은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라는 의미로 직역된다. 카터는 이 말씀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로<sup>33)</sup> 연결되어 형성된 것은 초기 신앙인들의 사회적 삶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반영한다고 추정한다. 그럼으로써 신앙인들은 로마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그런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대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카터는 황제가 먼저 언급되지만 그 황제는 이어서 언급된 하나님의 것들에 의하여 상대화된(물론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sup>34)</sup>

더 나아가 카터는 유대-로마 전쟁과 예루살렘 멸망, 플라비우스 황조의 등극과 각종 기념 행사 등을 경험하면서 일부 신앙인들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그런 트라우마가 해당 장면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추정한다. 애당초 로마제국의 사회적 삶에의 참여를 긍정하는 기능으로 전승된 ‘가이사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말씀은 그런 트라우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립적 구도를 강조하는 일화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래 현실 적응을 목적으로 전승된 말씀은 로마 권력을 신성모독과 우상숭배 행위자로 비판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의 것들을 돌려주라’라는 언급은 한편으로는 신앙인들의 사회적 삶을 용인하는 기능을 유지하지만, 그 말씀은 남세의무에 집중된 내용을 넘어서는 주제를 알려준다는 것이다.<sup>35)</sup>

이렇게 카터는 변화무쌍한 사회적, 역사적 정황과 연결하여 본문의 전승 과정에 대한 가설을 치밀하게 제시한다. 물론 복수 표현인 ‘가이사의 것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사회적 삶의 조건과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수는 있지만, 카터 자신은 그 예수 말씀의 진의에 관해서는 논의하

33) Giblin, “The Things of God,” 510 참조.

34) Carter, “The Things of Caesar,” 4-5.

35) Carter, “The Things of Caesar,” 7-8.

지 않는다. 아마도 예수 자신은, 그리고 마가공동체는 로마제국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는 신앙인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가이사의 것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운동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따라서 ‘가이사의 것들’은 그것의 대척점에 있는 권세를 가리키는 포괄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신앙인들 역시 예수 말씀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며, 자신들의 실제적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도 그 말씀을 보존하고 전승했을 수 있다. 또한 본래 독립적으로 전승된 ‘가이사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말씀이 납세 문제에 대한 질문, 주화의 문양에 대한 묘사 등과 나중에 결합되었다는 가설도 더 충분한 논증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 단락의 모든 묘사가 일관적이고 역사적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36)</sup>

오히려 현재의 본문이 그 자체로 강력한 로마제국 비판적 메시지를 드러낸다고 보는 태도가 적절해 보인다. 헤어초크(W. R. Herzog)는 예수 말씀을 납세 허용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견해들을 비판하면서, 로마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유대 지역의 상황에서 그 말씀의 본래적 의미는 “동전을 황제의 면전에 던져주고, 이 땅에서 우상숭배와 신성모독적인 데나리온 은전을 없애버리라”라는 것이었다고 추정한다.<sup>37)</sup> 그런데 헤어초크는, 예수는 자신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은폐하여 전달했다고 본다. 따라서 예수 말씀을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설정을 위한 이론으로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하며,<sup>38)</sup> 그 말씀의 본래적 진의는 후대의 신앙인들이 해석한 내용보다 더 도발적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장면 이후에 나오는 예수 고발 장면에서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금지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한 누가의 묘사가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추정한다

36) 이 논문의 “3.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개연성 문제”에서 다룬 내용을 참조하라.

37) W. R. Herzog, “Disassembling, a Weapon of the Weak: The Case of Christ and Caesar in Mark 12:13-17 and Romans 13:1-7,” *PRS* 21 (1994), 339-360, 특히 350.

38) Collins도 이 예수 말씀에서 윤리적 가르침이나 사회적 정책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A. Y. Collins,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557.

(눅 23:2).<sup>39)</sup> 실제로 납세 질문에 관한 누가 기자의 보도는 치밀하게 묘사된다. 공관복음에서 누가의 보도에서만 도입부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눅 20:20)라는 설명이 나오며, 또한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 일화가 백성 앞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강조된다(“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눅 20:26).<sup>40)</sup> 이렇게 편집함으로써 누가는 예수를 백성을 선동하고 납세거부를 주장한 인물로 고발한 내용(눅 23:2)이 거짓이요 부당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누가의 독특한 편집은, 한편으로는 예수의 무고함을 변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 문제가 중죄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헤어초크의 주장과 같은 또 다른 급진적 해석은 호슬리(R. Horsley)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대적자들이 제시한 세금 주제가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주제로 고조되며, 따라서 가이사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된다고 본다. 호슬리에 따르면, 본문에서 예수의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모호하게 답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 배타적 주권을 역설한 것이다.<sup>41)</sup>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주화는 통치자의 지배를 상징하는 것이었고,<sup>42)</sup> 예수가 ‘돌려주라’는 의미의 ‘아포디δωμι’(ἀποδιδώμι) 동사를 사용한 것도 의미심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단어는 빚을 갚거나 반드시 되돌려주어야 할 것을 반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준적 용어다(마 5:26; 18:25; 눅 7:42; 12:59 참조).<sup>43)</sup> 따라서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라는 예수 말씀은 토지와 백성과 소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로마 황제에게

39) Herzog, “Dissembling, a Weapon of the Weak,” 359.

40) J. Nolland, *Luke 18:35-24:53*, WBC 35C (Dallas: Word Books, 1993), 957 참조.

41) Horsley, *Jesus and the Spiral of Violence*, 307.

42) Horsley, *Jesus and the Spiral of Violence*, 308. Stauffer, *Christ and the Caesar*, 125 참조.

43) Luz,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258, n. 42는 이 단어가 반드시 이런 의미로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 어휘는 마태, 누가의 기록을 비롯하여 신약성서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 ‘되돌려주다, 빚을 갚다’의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단 한 차례 언급되며, 요한의 기록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모든 세금을 바쳐야 하는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다(눅 13:7 참조). 즉 대적자들이 기본적인 ‘주다’(διδώμι) 동사를 사용하여 질문한 것을 수정하여 ‘되돌려주다’(ἀποδιδώμι)로 대답한 것은, 예수가 세금의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sup>44)</sup> 그러므로 호슬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것들”(τά)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따라서 “그것들”(τά)은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권세를 가리키게 된다. 호슬리와 유사하게 일찍이 케너드(J. S. Kennard Jr.)도 예수 말씀의 초점은 모든 영토, 땅과 하늘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과 풍요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고, 황제에게 돌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만일 돌려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적이고 부정한 그 동전뿐임을 주장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sup>45)</sup>

헤어초크, 호슬리, 케너드의 해석이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볼 때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예수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말씀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들릴 수 있게 발언했다거나(Horsley), 대적자들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은폐의 태도로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는 추정(Herzog)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은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에 대한 예수의 물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상에 대한 언급은 유대인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문제제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 4.3. 형상 문제

예수는 데나리온 은전의 ‘형상’(εἰκών)을 언급한다. 이 단어는 공관복음에서 이 장면에서만 나온다(막 12:16; 마 22:20; 눅 20:24). 따라서 공관복음 전승은 이 일화에서 ‘형상’ 언급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즉 이 표현은 동전에 새겨진 문양에 대한 단순 묘사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내포한다고 볼 수

44) Horsley, *Jesus and the Spiral of Violence*, 309.

45) J. S. Kennard, Jr., *Render to God* (New York: Oxford, 1950), 123-125.

있다. 바울서신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될 때 사용되며 (롬 8:23; 고전 11:7; 15:49; 고후 3:18; 고후 4:4),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사람과 동물의 ‘형상’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언급됨을 알 수 있다(롬 1:23).<sup>46)</sup>

로마제국 지배기에 유대 사회에서 형상 문제와 관련된 율법 준수는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로 여겨졌고,<sup>47)</sup> 형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크게 동요했다. 예컨대 헤롯 대왕 말기에 경건한 일부 유대인들은 성전에 설치된 금독수리 형상을 끌어내려 도끼로 부숴버렸다가 죽임과 투옥을 당했다(『유대고대사』 17:149-167). 빌라도는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형상이 그려진 군기(軍旗)를 예루살렘에 몰래 반입했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유대전쟁사』 2:169-174). 특히 기원 40년경에 칼리굴라 황제가 예루살렘에 자신의 조상(彫像)을 세우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칼리굴라 위기’는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유대전쟁사』 2:184-103; 『유대고대사』 18:261-309; 필로, 『가이우스에게 간 사절단』 197-337).<sup>48)</sup> 또한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한 직후 갈릴리에 파송된 유대인 저항군은 제일 먼저 안티파스의 왕궁에 만들어져 있던 짐승들의 형상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요세푸스자서전』 65).

이런 배경에서 보면 예수가 동전의 특징을 ‘이 형상과 이 글’로 명료하게 언급한 것 자체가 본문을 단순한 납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해석할 수

46) ‘글’(ἐπιγραφή)에 해당하는 어휘 또한 공관복음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이 단어는 이 본문 외에 십자가 죄패에 새겨진 글을 가리킬 때만 한 번 더 언급된다(막 15:26; 눅 23:38). 예수는 테나리온을 가리켜 ‘형상과 글’이라는 두 개념을 적용했지만,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글’보다는 ‘형상’이 더 현저한 관심을 촉발한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형상’에 관한 내용만 다루었다.

47) 십계명의 제2계명에 해당하는 형상금지법(출 20:4; 신 5:8)에 관해서 요세푸스는 『아파온반박문』 2:73-78에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형상 제작 문화와 구별되는 유대 민족의 철저한 형상금지법을 설명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점을 변증한다.

48) 칼리굴라 위기에 대해서는 박찬웅,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전통의 충돌: 요세푸스의 칼리굴라 위기 보도를 중심으로,” *Canon & Culture* 3 (2009), 27-52를 보라.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수는 납세 행위를 초월한 차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세 문제를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반대편에 있는 ‘형상과 글’이 상징하는 바를 직시하게 만듦으로써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것일 수 있다.

고대의 주화는 통치자의 지배를 상징했으며, 평범한 백성의 편에서는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불쾌한 반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매개로 여겨졌다. 동전에 새겨진 문양의 율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통치자들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주화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더욱이 그 문양이 거룩한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정적 태도는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났을 것이다.<sup>49)</sup>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면서 이 ‘형상’ 개념이 동원되기도 한다. 구약성서를 배경으로 그 의미를 추정하면, 본문에 언급된 ‘형상’(εἰκών)이 창세기 1:26-27의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된다는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빚진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sup>50)</sup> 또 이와 유사한 본문으로 이사야 44:5이 제시되곤 하는데, 칠십인역에서 τοῦ θεοῦ εἰμὶ로 번역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표현이 예수 말씀의 배경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에 관한 예수 말씀의 본래 의도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sup>51)</sup> 그러나 본문의 예수 말씀을 동일한 어휘(‘형상’)나 비슷한 구문(‘하나님의 것들’)과 연결하는 해석은 무리한 시도로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가리키는 의미는 굳이 구약성서에 나타난 비슷한 어구를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파악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유대인 및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며 창조주며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씀이 특정한 구약성서 말씀을 암시한

49) 박찬웅,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본문의 역사적 개연성 연구,” 17-18 참조.

50) G. Bornkamm, *Jesus of Nazareth* (New York: Harper & Row, 1975), 123 참조.

51) Fitzmyer, 『앵커바이블 누가복음 II (10장-24장)』, 2146.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수 자신이 온 세상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 말씀에 부합하는 구약 성서의 본문을 제시한다면 예컨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시 24:1)와 같이 하나님의 영역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거론하는 것이 본문의 상황에 더 적절할 것이다.

루츠의 다음과 같은 해석도 본 연구의 이런 입장과 같은 방향을 지시한다. “예수는 종교적 계명과 같은 새로운 계명을 추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복종 주제가 모든 율법의 핵심으로서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능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제한 없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납세문제는 완전히 미미한 주제에 불과하다.”<sup>52)</sup> 즉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중 공식은 사실상 양자택일의 노선, 즉 하나님과 mammon(재물)이라는 두 주인 가운데 하나만 택하라고 촉구한 예수의 입장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마 6:24; 눅 16:13). 다시 말하면, 예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예수는 대적자들이 제기한 납세 논의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라’라는 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권세가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로마제국을 위해 성실한 납세자가 되라는 권고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52) Luz,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260. 이어서 그는 이 말씀을 “돈은 황제에게 주라, 그것은 그의 영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N. C. Croy, “‘Show Me the Money’: Jesus, Visual Aids, and the Tribute Question,” *TB* 71 (2020), 191-206, 특히 206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납세 주제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 위치시켜야 하고 황제에게 속한 것은 그저 동전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 5. 결론

예수의 말씀은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상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가의 예수는 추종자들에게는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만, 외부인을 위한 보편적 윤리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본문의 의도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암시된 예수의 의도는 데나리온을 화제의 중심으로 만든 일, 형상과 글을 언급한 일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예수상을 전제로 파악될 수 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말씀은 유일신 하나님 신앙에 대한 재확인 선언이며, 현실 권세에 대한 비판 선언으로 읽혀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선언은 로마제국에 대한 마가공동체의 비판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총독 재판 장면에서 빌라도는 예수의 왕권에 대해 질문하며(“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막 15:2; 마 27:11; 눅 23:3). 물론 “네가 [그렇게] 말한다”(οὐ λέγεις)라는 답변의 의미는 쉽게 해석되지 않지만, 로마 총독과 예수가 직접 만나는 장면에서 거론된 유일한 대화를 ‘왕권’에 관한 것으로 묘사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는 황제에 대한 납세 질문에 직면했다면, 황제의 대리자 총독과 마침내 대면하는 장면에서 예수는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다른 ‘왕’으로 암시된다. 또한 처형 장면에서 총독의 군대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는 묘사도 예수와 로마제국의 대립 구도를 암시할 것이다.

예수는 곤란한 질문을 피하려고 애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자신이 만난 인물들 앞에서 예수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행동한 경우는 전혀 보인 적이 없다. 거라사의 귀신 축출 장면에서 ‘로마 군단’이라는 귀신의 이름을 폭로하게 만들고, 로마의 특정한 군대(제10군단)를 상징하는 돼지들이 수몰되는 이색적인 장면이 드러나게 만든 것처럼, 마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예수는 최고 권력자 황제를 부정한 동전의 형상과 글의 주인공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시킨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공존 현실은 불가피하지만, 세상 통치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에서와 같이, 본문은 양자택일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택하라는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요어>**

세금, 가이사, 로마제국, 형상, 동전, 마가복음,

**<Keywords>**

tax, Caesar, Roman Empire, image, coin, Gospel of Mark

\* 접수일 2023년 3월 4일, 수정일 2023년 3월 23일, 게재 확정일 2023년 4월 23일

## 참고문헌

- 김학철,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마태복음 17:24-27에 나타난 마태공동체의 납세와 로마 지배 체제,” 『신약논단』 13 (2006), 601-629.
- 박경은, “마가복음의 바다평정 이야기(4:35-41)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이해,” *Canon&Culture* 12 (2018), 103-135.
- 박찬웅,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전통의 충돌: 요세푸스의 칼리굴라 위기 보도를 중심으로,” *Canon&Culture* 3 (2009), 27-52.
- \_\_\_\_\_,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공관복음서의 보도,” 『신학과 현장』 30 (2020), 249-272.
- \_\_\_\_\_,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본문의 역사적 개연성 연구(막 12:13-17),” 『피어선 신학논단』 22 (2023), 1-29.
- \_\_\_\_\_,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세금을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기독교세계』 (서울: 대한기독교감리회출판국, 2016.5), 44-47.
- 서용원, “마가의 논쟁설화에 나타난 생존 모티브 - 마가복음 11:27-12:17에 나타난 정치적 요소들의 기능,”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 (2005), 97-128.
- Bornkamm, G., *Jesus of Nazareth*, New York: Harper & Row, 1975.
- Bovon, F., *Das Evangelium nach Lukas (Lk 19,28-24,53)*, III/4, EK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9.
- Bultmann, R., *The History of the Synoptic Tradition*, San Francisco: Harper, 1976.
- Burke, S. R., “‘Render to Caesar the Things of Caesar and to God the Things of God’: Recent Perspectives on a Puzzling Command (1945-Present),”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16 (2018), 157-190.
- Carrasco, A. H., “Jesus, Vespasian und die antiochianische Lektüre des Markusevangeliums: Thesen und Antithesen zur politischen Interpretation des ältesten Evangeliums,” *BNNF* 185 (2020), 113-131.
- Carter, W., “The Things of Caesar: Mark-ing the Plural (Mk 12:13-17),” *HTS* 70 (2014), 1-9.

- Collins, A. Y.,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 Croy, N. C., “‘Show Me the Money’: Jesus, Visual Aids, and the Tribute Question,” *Tyndale Bulletin* 71 (2020), 191-206.
- Ebner, M., “Evangelium contra Evangelium: Das Markusevangelium und der Aufstieg der Flavii,” *BN* 116 (2003), 28-42.
- Estes, J. M., “Luther on the Role of Secular Authority in the Reformation,” *Lutheran Quarterly* 17 (2003), 199-225.
- Fitzmyer, J. A., 『앵커바이블 누가복음 II (10장-24장)』, 우성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 Gelrdini, G., *Christus Militans: Studien zur politisch-militärischen Semantik im Markusevangelium vor dem Hintergrund des ersten jüdisch-römischen Krieges*, SNT 163, Leiden/Boston: Brill, 2016.
- Giblin, C. H., “‘The Things of God’ in the Question Concerning Tribute to Caesar (Lk 20:25; Mk 12:17; Matt 22:21),” *CBQ* 33 (1971), 510-527.
- Hart, H. St. J., “The coin of ‘Render unto Caesar …’ (A note on some aspects of Mark 12:13-17; Matt. 22:15-22; Luke 20:20-26),” edited by E. Bammel and C. F. D. Moule, *Jesus and the Politics of his Da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241-248.
- Herzog, W. R., “Disassembling, a Weapon of the Weak: The Case of Christ and Caesar in Mark 12:13-17 and Romans 13:1-7,”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21 (1994), 339-360.
- Höpfel, H. (ed.), *Luther and Calvin on Secular Autho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Horsley, R., *Jesus and the Spiral of Viole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87.
- Joel, M., 『앵커바이블 마가복음 II』, 장성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 Kennard, Jr., J. S., *Render to God*. New York: Oxford, 1950.

- Leander, H., *Discourses of Empire: The Gospel of Mark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SemeiaSt 71, Atlanta: SBL, 2013.
- Liew, T. B., "Tyranny, Boundary and Might: Colonial Mimicry in Mark's Gospel," *JSNT* 73 (1999), 7-31.
- Lohmeyer, E., *Christuskult und Kaiserkult*, Tübingen: J.C.B. Mohr, 1919.
- Luz, U.,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Mt 18-25), III*, EK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5.
- Meier, J. P., *A Marginal Jew: Rethinking the Historical Jesus, Vol. 3: Companions and Competitors*, New York: Doubleday, 2001.
- Mrázek, J., "Die Beziehung von Kirche und Staat im Neuen Testament," *Communio viatorum* 56 (2014), 197-210.
- Nolland, J., *Luke 18:35-24:53*, WBC 35C, Dallas: Word Books, 1993.
- Pilgrim, W., *Uneasy Neighbors: Church and State in the New Testament*, Minneapolis, MN: Fortress, 1999.
- Stauffer, E., *Christ and the Caesar*, London: SCM, 1955.
- Theissen, G., 『기독교의 탄생: 예수운동에서 종교로』, 박찬웅, 민경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Tigchelaar, C., F. G. Martínez, 『사해문서 4』, 강성열 역, 과주: 나남, 2008.
- Townsend, N., "Surveillance and Seeing: A New Way of Reading Mark 12:17, 'Give Back to Caesar...',"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7 (2014), 79-90.
- Udoh, F. E., *To Caesar What Is Caesar's: Tribute, Taxes, and Imperial Administration in Early Roman Palestine (63 B.C.E. - 70 C.E.)*, Brown Judaic Studies 343, Providence, Rhode Island: Brown University Press, 2005.
- Zeichmann, C. B., "The Date of Mark's Gospel apart from the Temple and Rumors of War: The Taxation Episode (12:13-17) as Evidence," *CBQ* 79 (2017), 422-437.

<초록>

##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본문 (막 12:13-17)의 예수 말씀 이해

박찬웅

(목원대학교 조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마가복음 12:13-17에 나타난 예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우선 본문 해석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학자에 따라 해석사를 다양하게 분석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본문의 역사성에 대한 최근의 문제제기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즉 세금의 종류, 동전의 종류, 등장인물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살펴보면, 필자는 이런 비판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면서 본문의 역사적 개연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어서 이 글은 예수가 사회-정치적 주제와 밀접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다루고, 특히 ‘가이사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의 의미를 ‘형상’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려고 했다.

예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전체적 예수상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가의 예수는 추종자들에게는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만, 외부인을 위한 보편적 윤리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본문의 의도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암시된 예수의 의도는 동전을 화제의 중심으로 만든 일과, 형상과 글을 언급한 일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예수상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말씀은 유일신 신앙에 대한 재확인 선언이며, 현실 권세에 대한 비판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고 모호하게 들리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만난 인물들 앞에서 예수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행동한 경우는 전혀 보도된 적이 없다. 마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예수는 로마 황제를 부정한 동전의 형상과 글의 주인공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시킨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공존 현실은 불가피하지만, 세상 통치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에서와 같이, 본문은 양자택일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택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Abstract>

## Understanding the Sayings of Jesus on Taxes to Caesar (Mk 12:13-17)

Asst. Prof. Chanwoong Park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Jesus' words in Mark 12:13-17. By presenting the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 showed that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has been analyzed in various ways. In addition, I briefly reviewed three recently posed questions about the historicity of the text. Examining critical positions on the types of taxes, those of the coins and the problem of the characters (the Pharisees and the Herodians), I affirm the plausibility of the reports in the text. Subsequently, this article addresses the fact that Jesus is portrayed with sociopolitical themes, and especially trie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ings of Caesar and things of God' in relation to the 'image' of the coin.

The words of Jesus in the text must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image of Jesus in the Gospel of Mark. Mark's Jesus teaches his followers specific principles of behavior, but does not offer a universal ethic for outsiders. The intention of the text, and the intention of Jesus implicit in this scene, must be understood from the portrait and inscription on the coin, as well as from the constant image of Jesus in the Gospel of Mark. The saying "things of Caesar and things of God" is a reaffirmation of the monotheistic faith, and should be understood as a challenge to the Roman Empire.

Jesus did not say vague words to avoid an awkward situation. Jesus makes the Roman emperor nothing more than the image

and inscription on the impure coin. The reality of the coexistence between that of Caesar and that of God is inevitable, but as in the prayer for the name of God to be hallowed, not the name of the ruler of the world, the text must be understood as a command to choose only God.